

고지도를 이용한 향토지리 학습

Teaching and Learning of Regional Geography through the Old Maps

최진성(전주공업고등학교, cjspis@hanmail.net),

권선정(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sjkwon85@dreamwiz.com)

향토지리학습은 지역(고장)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지리학의 실제이다. 그동안 지역지리학은 단위 지역에서 확인되는 제 지리적 현상(경관이나 장소 등)의 형태적 특성(입지 또는 양적 특성)을 기술하는 모사적 재현(mimetic representation)이 중심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을 구성하는 경관이나 장소 등은 단순히 그 형태적 특성만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의미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텍스트(해석의 대상)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 텍스트로서의 경관이나 장소 이해를 통한 향토지리학습은 지리적 현상을 구성하는 형태와 의미간의 자의적 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적 접근(interpretive representation)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형태와 의미 차원의 속성을 포괄하는 경관 텍스트로서의 옛 지도에 주목하여 다양한 지리교육적 개념이나 개념간의 관계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도가 지리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햄릿(Hamlet)’이라는 비극에서의 햄릿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증주의적인 인식론에 기초한 현대의 지도 제작 과정 또는 지도 보기와 관련하여 이러한 고지도들은 그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이라는 평가 잣대에 의해 지역이해의 자료로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지도는 정치적, 지리적, 역사적인 측면 등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해석의 대상으로서 지역(향토나 고장) 이해를 위한 의미 있는 경관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지리 학습자료로서의 고지도 읽기 작업은 그 형태적 특성(입지, 방위, 공간구조 등)에만 그치지 않으며, 그러한 텍스트 구성의 기초가 되는 코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지도를 통한 향토지리학습(향토이해, 지리교육적 개념들 또는 개념간의 관계 이해)에서 주목할 학습 내용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 입지 패턴, 공간 구조 등과 같은 지리교육적 개념의 이해, 둘째, 지역지리학의 중요 목표인 현상들간의 관계 특히,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증진, 셋째, 지도와 지리지를 연계한 현대의 지형도 읽기 학습, 넷째, 향토의 역사·문화적 특성(지역 정체성)을 이해하는 체험학습 등이다. 다섯째, 앞의 내용들은 최근의 사회과 통합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업방법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토는 인간 삶의 구체적 경험이 녹아 있는 장소로서 다양한 의미층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고지도와 같은 역사적 자료를 이용한 체험학습과 향토이해는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고장의 의미 있는 문화유산의 확인 및 보존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